

동향분석실 조 빛 나 연구위원 02-6000-5184, joybinna@kita.net
전략시장연구실 김 은 영 수석연구위원 02-6000-7623, ordiy@kita.net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홍콩 활용 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전통적으로 홍콩은 선진화된 비즈니스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와 중국 간에 전문적인 금융, 경영, 서비스 분야의 연결 중심지이자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시장 개방, 비즈니스 환경 개선 등으로 중국 자체의 경쟁력이 상당부분 높아지면서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은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비스 업종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 주강삼각지 인근 진출의 교두보, 기업의 파이낸싱, 중국시장의 테스트 마켓 등 일정 범위에서 홍콩의 활용가치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홍콩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홍콩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의 내수시장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01. 홍콩 활용 검토 배경

- ◎ 중국의 성장정책¹⁾과 소비구조 변화로 우리 기업들의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나 인적, 시간적 비용과 중국 내 진입장벽 강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온 홍콩 활용의 필요성 대두
 - 중국의 소비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새로운 관점 필요
 - * 중국의 소비재 수입 비중 : 6.4 (2012) → 6.7 (2013) → 7.6 (2014) → 8.6 (2015)
 - * 2015년 GDP 성장률(%) : 베이징/상하이 6.9, 충칭 11.0, 푸젠 9.0, 광둥 8.0

한국-중국-홍콩 무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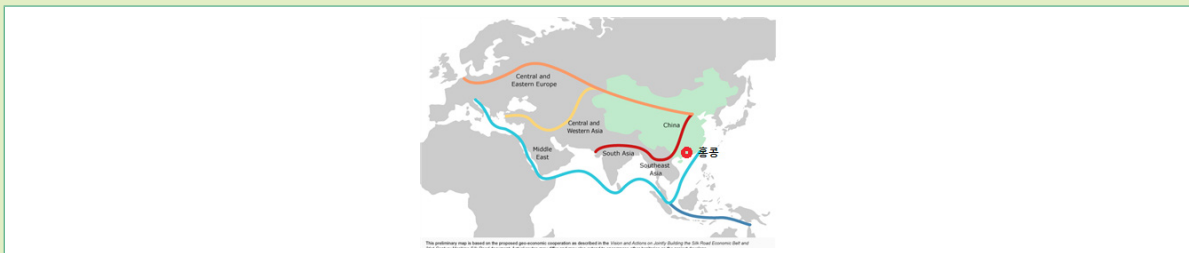
- 한국의 對홍콩 수출은 중국과의 직접 교역이 증가하면서 비중 감소
 - * 對홍콩 수출 비중(%) : ('00) 6.2 → ('10) 5.4 → ('15) 5.8
 - * 홍콩의 對한국 수입의 87.8%('15)가 중국으로 재수출
- 중국의 對홍콩 수입 비중도 감소 추세이며, 홍콩 인근 주강삼각지대인 광둥성의 對홍콩 수입도 감소하고 있음
 - * 중국 전체 수입 중 對홍콩 비중(%) : ('98) 4.8 → ('05) 1.9 → ('15) 0.5
 - * 광둥성 전체 수입 중 對홍콩 비중(%) : ('98) 7.6 → ('05) 3.2 → ('15) 1.1

1) 뉴노멀, 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일대일로, 공급측개혁 등

◎ 중국이 ‘13차 5개년 계획’에서 홍콩을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최적의 지원지로 언급하며 중국 진출을 위한 홍콩의 중요성이 재 인식됨

-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에서 홍콩을 경제, 무역, 운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중국과 홍콩 사이의 제한을 완화시켜 홍콩만의 강점을 제고할 것을 언급
-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주요지역 중 하나인 광둥성이 홍콩과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홍콩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

▶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란 ?



자료 : 한국일보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경제권 49개국을 연결하는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로드맵(2014.4)은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3개 노선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 2개 노선 등 총 5개 노선으로 계획 중

* 실크로드 기금 400억 달러 투자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 중

중국 일대일로 로드맵

구분	일대일로 로드맵
일대 (육상 실크로드)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중국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중국 → 남중국해 → 남태평양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정치, 외교, 안보를 아우르는 장기비전으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중국의 꿈(中國夢)’과 연결됨
 -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바탕으로 인력, 무역, 경제 교류 확대를 도모하여 중국의 경제적 영향권을 확장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음
 -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위해 정책협력, 교통 인프라, 무역 간소화, 금융협력, 민간교류 등 5대 중점 분야에 대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 항공, 에너지, 물류, 금융, 문화 방면에서의 국가간 경제발전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목적

주요목적	상세내용
신흥시장 확보 및 과잉생산 문제 해소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신흥시장 진출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 및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해소
자원과 에너지 확보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로부터 원유 등의 자원 확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해소	중국 내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농 격차를 해소하여 신장 등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의 약화를 도모
지역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	미국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고 지역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

02. 홍콩의 분야별 경쟁력

● 홍콩은 오랜 기간 제3국가와 중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시장, 선진화된 비즈니스 환경, 금융 및 물류분야의 높은 경쟁력이 자리잡고 있음

- 홍콩 기업은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 현지 기업과 같은 혜택을 누림과 동시에 장기간 자유무역지구로서 선진 비즈니스 기법을 활용

① 국제금융의 중심지

- 세계 3대 국제금융센터이자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총 203개의 은행 영업 중, 세계 100대 은행 중 71개 은행 진출(2014년 말)
- 위안화 역외시장에서 홍콩 비중은 53%(중국인민은행 2015.7)로 최대의 역외 위안화 결제시장
* 중국의 상품무역 거래 시 위안화 결제비중(%) : ('13) 11.6 → ('14) 22.3 → ('15) 26.0
- 외환규제가 없고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업의 파이낸싱 기지로 활용 중

② 비즈니스 친화적 조세체계

- 세계 최저수준의 법인세율 : 법인세 16.5%, 개인소득세 15%
(한국 22.0%, 아일랜드 12.5%, OECD평균 23.4%)
- 간단한 조세체계 및 역외소득 비과세 국가
- 주요 비과세 대상 : 역외소득, 이자소득, 배당금, 자본소득(자본자산의 판매), 채권, 수출입상품 관세(일부 주류, 유류, 자동차 등 제외), 부가가치세(일부 품목 제외)

③ 홍콩-중국 간 CEPA 협정 및 선진화된 MICE 산업

- CEPA 협정에 의거 상품 및 법률, 물류, 의료 등 48개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 폭넓게 개방양허하고 있음. 매년 100회 이상의 국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고 숙박 관광객의 47.4%가 MICE 관광객(2014년)
- 상품수출의 경우 홍콩 원산지 요건(홍콩내 30% 이상 가공)의 충족이 필요하며, 서비스 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²⁾ 인증이 필요

④ 아시아 물류 허브, 발달된 유통

-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항공화물 세계 1위로 중국 남부 및 주강삼각지대의 물류 기지 역할 수행 중
- 홍콩 유통산업은 GDP의 24.1%(2014)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중계무역상과 전문 유통업체가 발달하여 중국, 아시아 등 판매망 구축에 경쟁 우위
* 무역업·도매업이 GDP의 19.1%, 소매업이 5.0% 차지
- 중국 내 안정적인 유통망과 판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통기업 다수 위치
- 세계 250대 소매기업 중 홍콩기업(2014년)으로 왓슨(50위, 중국 내 2,485개 점포), 화룬창예(71위, 중국내 3,400개 점포, 뉴나이국제(92위, 6,500개 점포), 저우다푸주얼리(124위, 2,257개 점포) 등이 있음

2) 홍콩 내 법인설립, 3년 이상 운영(건설, 금융, 보험은 5년), 홍콩법인세 납부, 직원의 50% 이상 홍콩인 등의 조건 충족 시 인증

⑤ 지정학적으로 홍콩은 중국 내수시장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거점에 위치

- 일대일로 해상 경제벨트의 주요지역 중 하나인 주강삼각지(광둥성, 선전, 마카오)와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홍콩을 통한 중국 남부 내수시장 진출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사업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전망

중국 내수시장에서 홍콩의 위치



일대일로에서 홍콩의 위치



03. 중국 진출을 위한 홍콩 활용 가능성 검토

1)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

● (금융, 조세)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이점 및 간소한 조세체계 활용

- 홍콩은 외환규제가 없어 중국 법인으로부터 배당받거나 재투자 시 유리하며 본토와의 차입금리 차이를 활용한 금융비용 절감, 다양한 달러·위안화 금융상품을 통한 기업의 파이낸싱에 활용이 가능
- 중국 투자기업을 홍콩증시에 상장하거나 중국법인 수익을 중국이나 제3국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이용할 경우 홍콩의 조세제도를 활용한 절세 가능

중국투자 이익금 회수 방법에 따른 효과³⁾

과세대상	對중국 직접투자	홍콩법인을 통한 중국투자
배당*	5% 원천징수	5% 원천징수
이자	10%	7%
로열티	10%	5~7%
청산	청산소득에 대해 배당과 동일하게 과세	

3) 배당소득의 경우 중국회사의 지분율 25% 미만 보유시 세율은 공히 10%, 홍콩에서 한국으로 이익금이 이동할 경우에는 과세 없음

◎ (중-홍콩 CEPA) CEPA를 활용한 콘텐츠, 유통 등 서비스 등 미래 유망분야로의 진출

- 상품 뿐 아니라 법률·물류·의료 관광서비스 등 48개의 서비스 분야에서 홍콩서비스공급자 (HKSS)인증을 받아 CEPA를 활용할 경우 중국 직접 진출시보다 유리

중국 진출 시 CEPA 통하는 경우 혜택

분야	중국 직접진출	CEPA 활용(HKSS 인정 시)
유통	• 합작만 가능(지분 49%까지)	• 50개 이상 매장 오픈시 100% 지분소유 가능
콘텐츠	• 수입영화 쿼터제 작용 • 합작시 제작진 50%, 배우 1/3 이상 중국인 • 상영관은 합작투자만 가능(최대지분 75%)	• 홍콩내 제작시 쿼터제 미적용 • 배우는 적용하되, 제작진 비율 미적용 • 상영관 100% 단독투자 가능
금융	• 은행자회사 설립 시 총자산 200억 달러 이상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전 3년 경영 및 2년 흑자 의무 • 일부 서비스(뮤추얼 펀드 판매 등) 외국은행 진출 불가	• 은행자회사 설립시 총자산 60억 달러 • 위안화 비즈니스 신청 제한 철폐 • 기존 제한분야 서비스 제공 가능
운송	• 합작만 가능(지분 49%까지) • 일부 분야는 외국기업 참여 불가	• 국제 선박 관리, 컨테이너 보관, 홍콩 등록 선박 검사,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매매, 선박 유지·수리 등 100% 지분소유 가능 • 기존 제한분야 합작형태로 투자 가능

자료 : 홍콩 총영사관

◎ (물류) 중국 남부 및 주강삼각지(광둥성, 선전, 마카오)지역의 물류기지로 활용

- 최근 중국 본토 항구들이 저렴한 항만 하역료와 배송의 근접성을 경쟁력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면서 홍콩의 물동량 증가는 정체되고 있으나 중국남부 지역 및 제3국 수출 시 활용 가능

* 홍콩의 컨테이너 물량(백만 TEU) : ('11) 24 → ('13) 23 → ('14) 22 → ('15) 20

- 광둥성 등 중국 남부지역 물량은 통관의 용이성, 투명성, 발전된 물류서비스 등으로 홍콩항 하역 후 바지선 및 택배 통해 환적 운송되는 경우가 많음

◎ (테스트마켓 및 전시회 활용한 거래선 발굴)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트렌디한 소비재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제품 반응을 시험하는 테스트마켓과 국제 전시회를 활용한 거래선 발굴 기지로 활용

- 화장품 등 소비재의 경우 도·소매업 및 대형 유통망이 발달한 홍콩의 매장에 입점하여 중국인들의 구매 성향, 시장의 정보를 확보하는 테스트마켓으로 활용 가능
- 중국 내 국제전시회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 세계 바이어 및 기업들이 참가하는 홍콩의 국제 전시회는 여전히 매력적인 거래처 발굴 및 제품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2) 일대일로 프로젝트 진출

- ◎ (금융 조달창구 및 전문 서비스 지원) 경쟁우위에 있는 홍콩의 금융 산업을 토대로 일대일로 관련 국가와 지역의 자금조달과 전문 서비스 지원이 가능
 - 세계 100대 은행 중 71개 은행이 홍콩에 진출해 있으며 인프라 스트럭처 파이낸싱과 민관 협력파트너십(PPP)(예 : 해저터널, 아시아월드 엑스포 등)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홍콩의 법률·회계 서비스 부문은 중국 본토와 관련된 투자에 필요한 전문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중국기업의 일대일로 관련국 투자, 해외자본의 유입 등으로 확대 기대
- ◎ (배후물류기지) 홍콩은 효율적 운영 능력을 갖춘 자유무역항으로서 일대일로 건설에 따른 물동량 확대와 응집이 기대됨
 - 일대일로 해상 실크로드 관련국인 ASEAN 물류시장 진출과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홍콩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
- ◎ (원스톱 제조·유통 거점) 주장삼각주 경제권⁴⁾ 중 중국의 남부 지역은 중국의 대표적 제조업 기지이며 홍콩은 제품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고 있음
 -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 생필품 수요를 위한 제조·유통의 기지로 홍콩을 포함한 주장삼각주 경제권 활용 가능

주강삼각지 도시 핵심 산업

도시	핵심 산업
광저우	자동차 및 부품, 운송설비, 전기·전자 제품, 의류, 방직, 완구 등
선전	전자제품, 컴퓨터, 통신설비, 완구, 집적회로, 향만서비스, 물류, 금융 등
중산	금속제품, 오토바이, 음향설비 등
후이저우	디지털전자제품, 광학디스크, 전지, 회로판, 정밀기계 등
포산	공업도자기, 방직제품 및 아동의류
동관	전자제품, 컴퓨터부품 및 액세서리, 가구, 가족제품, 완구, 주방제품 등
장먼	방직품, 의류, 종이제품 등

자료 : Kotra

- ◎ (중국 남부지역 일대일로 투자 거점) 중국 남부 일대일로 인프라 구축 사업 투자를 위한 금융, 물류,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 가치가 기대됨
 - 특히 푸젠, 광시, 윈난 등 지방 정부는 ASEAN과의 연계를 통한 일대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어 중국 지방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 가능
 - 광둥성은 광저우를 중심으로 광저우항과 21개 항구, 해상항구연맹을 조직할 계획이며 특히 아세안 국가와 항만 등 인프라 건설 추진 중

4) 남부 9개성(省) + 홍콩, 마카오. 9개성(省)은 광시장족자치구, 푸젠, 장시, 후난, 광둥, 하이난, 쓰촨, 구이저우, 윈난

04. 시사점

- ◎ 최근 중국이 직접 대외거래를 하려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홍콩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나, 홍콩이 보유한 경쟁력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중국 진출 희망 소비재의 테스트마켓
 - 광둥성 등 중국 남부지역 진출의 물류, 유통 거점
 - 홍콩 개최 국제전시회 등을 활용한 거래처 발굴 및 정보 취득
 - CEPA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의 중국 진출
- ◎ 특히, 우리 중소기업은 홍콩을 중국 진출 희망 소비재의 테스트마켓이자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활용 가치를 검토할 필요 있음
 - 홍콩시장에서 중국 진출 희망 소비재의 반응을 보고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중-홍콩 CEPA 활용을 통해 서비스 산업 투자 시 완화된 규제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검토 가능
- ◎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홍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홍콩을 금융창구, 물류허브, 원스톱 제조·유통의 거점, 투자거점 등 4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대일로 사업 추진에 있어 인프라 뿐 아니라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조·유통의 기지로서 홍콩과 주강삼각주 경제권 연계 활용 검토 필요
 - 홍콩을 통한 일대일로 진출 전략은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어 장기적 접근이 필요

문의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조빛나 (02-6000-5184, joybinna@kita.net)
전략시장연구실 수석연구원 김은영 (02-6000-7623, ordiy@kita.net)

현장

고객

미래

“
무역의 길을 여는
신뢰의 동반자,
국제무역연구원
”

01. 현장중심

무역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현장 보고서 및 정책 대안 제시

02.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무역 성장의
토대 마련을 위한 상품, 서비스,
FTA 등의 중장기 연구

03. 고객중심

회원사, 정부, 유관기관의
니즈를 반영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중심 연구 활동

국제 무역 연구의
Think Tank